

“월급으로 부족”...40대 주식투자자 13%는 ‘주린이’

〈투자 초보자〉

하나금융 행복연구센터, 광주 40대 자산관리 인식 설문 금융자산 53%는 예·적금...주식 등 금융투자자는 23% 차지 투자금 늘린 이유 48% “저금리 지속·목돈 마련 힘들어”

광주 40대 소득자 10명 중 1명 꼴로는 주식투자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 처음 투자에 발을 들였고, 5명 중 2명은 1~2년 새 금융투자 금액을 늘렸다. 이 같은 내용은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생애 금융보고서 -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머니편)’에 담겼다.

하나금융그룹은 광주 40대 소득자 83명(남 42명·여 41명)을 대상으로 자산관리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물었다.

설문대상 가운데 초등생 자녀를 둔 가구가 3분의 1로 가장 많았고, 중고생 자녀, 영유아 자녀, 미혼·독신 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근로자가 75.9%로 대다수였고, 보유자산은 3억원 미만(37.3%)과 3억원 이상·5억원 미만(32.5%) 등이 비슷한 비중을 나타냈다.

10가구 중 7가구가 집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26.5%)는 무주택자였다.

광주 40대들의 가계 총자산은 3억7255만원으로, 전국 평균(4억1227만원)보다 3972만원 정도

더 적었다. 광주 응답자들의 총자산의 20.5%에 달하는 7644만원은 금융자산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 금융자산 보유 비율(16.9%)보다 소폭 높았다.

광주 40대들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가운데 절반 이상(53.4%)을 예·적금에 넣어두고 있었다. 주식 보유 비중은 16.2%로 뒤를 이었고 ▲저축성보험 23.2% ▲파생상품·주거연계증권(ELS)·펀드·신탁 등 기타 금융투자상품 6.0% ▲채권 1.2% 등 순이었다.

금융투자를 하고 있는 40대 소득자(83.1%)는 투자경험이 없다는 응답자(16.9%)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들에게 금융투자를 시작한 시기를 묻자 ‘10년 이상’ 됐다는 응답률이 30.4%로 가장 높았다. ‘10년 미만’(20.3%)이 다음으로 많았고, ‘5년 미만’(18.8%), ‘3년 미만’(17.4%)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13%는 금융투자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더불어 최근 1년 이내 금융투자 규모를 확대했

다는 광주 40대는 5명 중 1명 꼴(20.3%)로 나타났다. 앞으로 금융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답한 응답률은 62.3%로, 전국 평균(57.4%)을 웃돌았다.

최근 2년 안에 투자를 늘렸다는 응답률이 21.7%로 가장 많았고, ‘최근 3년 이내’(17.4%), ‘최근 4~5년 이내’(10.1%) 순이었다. 40대의 금융투자 확대가 최근 1~2년 사이(42.0%) 두드러진 것이다. 3명 중 1명(30.4%)은 최근 5년 동안 금융투자를 늘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금융투자를 확대한 이유를 묻자 절반 가까이(47.9%·중복응답)는 ‘저금리 지속’과 ‘투자하지 않으면 목돈 마련이 어려워져서’라고 답했다.

▲주택(기타 부동산) 등의 가격이 높아지면서(18.8%) ▲앞으로 나와 배우자의 소득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18.8%) ▲온라인, 모바일 등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고 간편해지면서(18.8%) ▲소액으로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감이 생겨서(12.5%) ▲금융투자가 확산되는 뉴스나 관련 이슈들의 소식을 접하면서(12.5%) 등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광주 응답자 가운데 최근 1~2년 안에 투자위험 수용 의향이 높아졌다는 답변율은 26.5%에 달했다.

투자원금 손실이 생길 때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느냐 묻자 30.1%는 5% 미만까지는 가능하

다고 답했다. 투자원금은 보전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7.7%로 뒤를 이었고, ‘10% 미만’(24.1%), ‘20% 미만’(14.5%) 순이었다. ‘기대 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없다’는 응답률은 3.6%에 그쳤다.

한편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 금융부채가 증가했다는 응답률은 43.6%에 달했다. 거의 차이가 없다는 비율은 41.8%였고, ‘감소했다’는 14.5%에 불과했다.

주택관련 대출 외 보유한 대출의 종류를 묻자, 신용대출·카드론이 31.3%로 가장 많았다. 개인적으로 빌리거나 예적금·펀드를 담보로 하는 기타 대출 비율도 30.1%에 달했다. 45.8%는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이 없었다.

김혜령 100년 행복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자산관리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가계의 중심축인 40대 역시 금융투자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40대를 대상으로 자산관리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11월 광주와 서울·부산·대구·대전에 거주하는 만 20~49세 소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벌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 ‘희망이음 프로젝트’ 7관왕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1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0년 희망이음 프로젝트 시상식’에서 총 7개 팀이 수상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지역 내 청년들에게 취업관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지역 우수인재의 수도권 편중 현상 완화를 위해 지역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호남·제주권역은 광주TP와 캠퍼스종합기술원, 제주TP 주도로 사업이 추진됐으며, 광주TP는 기업에로해결과 지역문제해결, 기업탐방 우수후기, 우수 서포터즈 등 전 부문에서 수상을 기록했다.

‘SFLAB’ 팀은 기업에로해결 부문 산자부장관상인 금상을 받았고, ‘한과로워’ 팀은 지역문제해결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광주TP 지원을 받아 서포터즈로 활동한 대학생 박지수·이송아씨는 각각 우수 서포터즈 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고, I-PLEX 입주 기업인 ‘다공솔루션’은 기업부분 장관상을 받았다. 특히 1명만 받을 수 있는 수행기관 장관상 역시 광주TP 성장지원부 박성현 부장이 수상했다.

김선민 광주TP 원장은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향한 열정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지역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불 건조도 OK

위니아딤채 미국식 건조기 출시 16kg 대용량·빠른 건조 장점

위니아딤채는 건조기 수요 증가와 생활가전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이불 건조까지 가능한 대용량의 16kg 정통 미국식 건조기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미국식 건조기는 히터로 공기를 데워주고 옷감에서 나온 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히터식 건조기로,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위니아 미국식 건조기는 빠르고 사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기존 히터펌프식 건조기의 절반 수준으로 가격을 낮춘 게 특징이다.

동일 용량 빨래를 기준으로 히터펌프식 대비 약 15% 이상 빠르게 건조가 가능하고, 운동복과 타올, 셔츠 등 옷감 특성을 고려한 10가지 맞춤 건조 코스도 제공한다.

대용량인 빠른 건조와 튼튼한 구조 설계 등으로 일반 가정은 물론, 대량 의류 건조가 필요한 기숙사와 헬스장, 요양병원 등 수요가 많은 것으로 기대된다.

위니아 건조기는 양판점,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및 온라인몰에서 구입 가능하며 판매가격은 70만원대이다. 국내에 이어 미국 시장도 다음달 출시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최대 150억원 신용보증...신보, 유니콘 기업 모집

3월11일까지 온라인 모집

신용보증기금은 ‘혁신아이콘 제5기’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을 3월11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유니콘’(Unicorn)은 기업가치 10억 달러(1조원) 이상, 설립한 지 10년 이하 창업기업을 말한다. 신청은 신보 스타트업 플랫폼(kodit.co.kr/startup)에서 받는다.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기업을 모집한 뒤 서류심사(3월16일~4월8일), 발표평가(4월12~29일)를 거쳐 오는 6월16일 최종 확정한다.

신보 지원 자격은 창업 후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신산업 영위 기업 중 ▲연매출 5억원 이상이고 2개년 평균 매출성장률 10%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유지한

기업이다.

최종 선정기업에는 3년간 최대 15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최저보증료율(0.5%)을 적용하며, 6개의 협약 은행을 통한 0.7%포인트의 추가 금리인하 지원이 제공된다. 해외진출, 기업상담, 홍보활동 지원 등 다양한 비금융서비스도 제공한다.

신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22개 혁신아이콘을 선정했다. 전담 조직인 지식재산금융센터를 통해 총 1910억원의 신용보증한도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법률·노무상담, 일자리연계 등 13건의 맞춤형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혁신아이콘 기업은 1년 전보다 73.0%의 매출 성장과 59.7% 고용 증가를 달성했으며, 1765억원의 민간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고 신보는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신보,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분쟁조정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신보는 지난 2018년부터 전남도로부터 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상가임대차, 가맹사업거래, 약관 분쟁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피해 대응

과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전남신보는 상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 운영체제를 확보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가까운 전남신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1577-9676)에 상담을 신청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행복요양원
강석이의 유머인생
밤벌레의 행복
이기원 지음

정가 12,000원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행복요양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

전주(영풍문고, 응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